

회환은 이제 그만...

올해 들어서 새로 문을 여는 신규점포들이 많이 생겨 나고 특히 요즘에는 점포를 새로 꾸며 재개업하는 제과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늘고 있다. 어쨌든간에 시설을 새로 바꾸고 점포를 다시 치장하는 것은 제품의 질적 향상만 뒤따라준다면 업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다.

외식산업의 팽창과 햄버거, 도우넛 등 유사업종의 시장 확산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과업이 시설개선이나 제품 질을 위한 재투자에 점주들의 열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반가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몇년새 부쩍 늘어나 서울과 대형점포들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소규모의 점포들도 장비를 교체하고 매장을 새로 꾸미는 시설 재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일면과는 상충되게 재개업에 따른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음을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의 오랜 전통중에 경사나 예사에는 이웃간에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 그런 탓인지 요즘 경쟁적이다 싶을 정도로 개업시에 축하회환을 주고 받는 일이 많아졌다. 더욱이 우리 제과업에는 모임이 많아 친목을 나누는 동업인들끼리, 또는 관련되는 업체들이 재개업이나 개업에 회환을 보내는 일이 통과의례인양 아주 당연한 일이 되고있다.

그런데 이 회환의 수명이 고작해야 하루나 잘하면 이틀정도 이고, 삼일을 넘길때 쯤이면 보기싫은 흉물덩어리가 될 뿐아니라 쓰레기공해에도 일조를 한다는 사실이고 이걸 치우려면 별도 비용까지 치루어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회환 1개에 소위 2단짜리는 전국 어디에서나 통상 7만원이고 3단짜리가 10만원이니 전부 다는 아니지만 받는다면 5개는 보통이요, 많이는 10개이상으로 크게는 100만원이라는 거금(!), 심할 경우에는 그 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며칠동안의 치장을 위하여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가 개업을 축하해주고 잘 되기를 성원하는 마음은 참 고마운 일이나 요새 개업하는 제과점을 돌아보면 서 점포앞에 죽 늘어서있는 회환의 행렬을 보면 이젠 좀 달라져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것은 비단 몇사람만의 생각은 아닐것 같다.

그렇다고 서로의 정성을 주고 받는 이러한 행위를 애초에 말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걸치레는 말며, 꼭 축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회환대신 화분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나누고 성원했으면 하는 것이다.

회분일 경우에는 개업일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며 며칠이 지나면 쓰레기로 변하는 회환보다는 의미로 따져봐서도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특히 낭비도 막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 업계 전체로 따져볼 때 그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나 클 것이며, 꼭 계산상의 이득보다도 이러한 인식전환이 가져다줄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